영어어문교육 *제32권* 1호 2026년 봄
https://doi.org/10.35828/etak.2026.32.1.137

“그리고”와 “하지만”의 학습용 번역 특성 연구 :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을 중심으로

김지영
(서울대학교)

Kim, Ji-young. (2026). Pedagogical translation of ‘and’ and ‘but’: Exploring usage patterns in CSAT-linked EBS textbook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2*(1), 137-16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nslations in CSAT-linked EBS textbooks, focusing on the use of conjunctive adverbials. A parallel corpus was built from English source texts (ST)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TT) drawn from EBS materials, alongside a comparable corpus comprising general English books and news articles.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overall distribution of conjunctive expressions across the corpora then focused on two high-frequency items—*kuliko* (“and”) and *hajiman* (“but”). The two corpora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frequency, positioning, and ST–TT correspondence. The findings show that EBS translations tend to prioritize structural fidelity by closely mirroring ST sentence structures. This tendency frequently results in the literal rendering of “and” as *kuliko* and a reduced frequency of *hajiman*, even in contexts where contrastive meaning is implied. General translations, by contrast, employ more flexible strategies—such as paraphrasing, omission, and conjunctive addition—to enhance discourse-level coherence. These patterns suggest that EBS translations serve as pedagogical tools for recognizing ST sentence structures, while highlighting the need for translation approaches that balance sentence-level fidelity with discourse-level coherence. A dual approach—one that maintains literal fidelity for structurally simpler texts while adopting more interpretive strategies for relatively complex ones—may more effectively support learners’ reading comprehension.

[pedagogical translation/conjunctive adverbials/CSAT-linked EBS textbooks/ explicitation/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학습용 번역/접속 부사어/EBS 수능 연계 교재/명시화/영어 독해 교육]

I. 서론

한국의 영어교육 환경에서 독해 교재의 번역문은 수능 중심의 평가 구조로 인해 오랜 기간 필수적인 학습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2024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2025)에 따르면 주요 71개 출판사 중 상위 20개사 가운데 16곳이 학습 참고서를 주력으로 발행하며, 대부분의 수능 대비 영어 교재에는 한국어 번역문이 일관되게 수록된다.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는 고등학생 90% 이상이 사용하는 필수 자료로서(박지은, 임현우, 2017), 수록된 번역문은 수업 방식과 학습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번역문의 고유한 언어적 특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EBS 교재의 번역문은 학습자가 영어 원문과 대조하며 의미 단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사전적 어휘와 문법 요소를 강조하는 직역 중심의 양상을 띠는 경향이 있다(김지영, 2020a, 2020b).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 및 자습 상황에서 영어 지문 자체보다 번역문의 모국어 해석에 의존하며(김지영, 2025), 지문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번역문을 암기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현실 또한 이미 보도된 바 있다(유소연, 최원국, 2020; 윤석만, 2014). 이러한 현상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할 만큼 높은 수능 영어 지문의 난이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1] 특히 영어 지문에 접속사, 관계절, 분사구문 등 복잡한 문법 구조가 포함될 경우 학습자는 원문 분석 과정 대신 번역문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습용 번역문의 어휘 대응 방식이나 결속 표현 사용 방식은 학습자의 독해 전략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EBS 수능 연계 교재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학습자 다수가 반복적으로 접하는 핵심 학습 입력물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교재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과 번역 전략은 학습자가 원문을 해석하고 텍스트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지영(2025)은 학습자들이 주로 모르는 단어나 숙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용도로 해당 번역문을 활용하며, 단어나 문장이 생략되지 않고 원문의 요소가 충실히 전이된 번역을 선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활용 양상은 학습용 번역문이 원문의 통사 구조 이해를 지원하는 비계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주로 영어 지문의 어휘 수준이나 이독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집중해 왔으며,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이나 번역 전략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미비하다.

교재 번역문은 학습자가 영어 지문의 독해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어휘의 한국어 대응이나 복잡한 문장 구조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텍스트로만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교재 번역문은 매끄럽게 완결된 글이 아니라 단지 영어 원문의

[1] 김지영(2025)은 교사 대상의 면접조사를 통해, 영어 지문의 난이도가 높고 주제가 난해할수록 학생들이 한국어 번역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지문의 난이도는 최근 2026년도 수능 영어의 일부 지문이 뉴욕타임스나 BBC 등 해외 유수 언론에서 회자될 정도로 극심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해를 돕는 어색한 텍스트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학습용 번역(pedagogical translation)이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 GTM)의 산물로서, 문맥이나 유창성보다는 단순한 언어 간 코드 전환인 직역 연습에 불과한 다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방법론으로 간주되어 온 것과 관련이 있다(Kokkinidou & Spanou, 2014; Korošec, 2013; Stiefel, 2009).

그러나 EBS 수능 연계 교재는 전국 단위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학습 자료이며, 수능 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자습, 수업, 학교 시험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해당 시기 수능 영어 영역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약 70%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2020), 이는 학습자들이 교재 지문과 번역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학습용 번역의 영향력은 최근 AI 번역 기술의 확산과 맞물려 새로운 교육적 의미를 갖게 되고 있다. 번역문을 단순한 보조 자료가 아닌, 영어 원문과의 병렬 제시를 통한 독해력 향상, 언어 간 인식과 AI 리터러시 함양의 자원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Murtisari, 2025).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용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학습자의 독해 방식과 교육 방향을 깊이 있게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텍스트 이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접속 부사어(conjunctive adverbials)의 번역 양상에 주목한다. 접속 부사어는 기능어로 분류되나 그 선택과 사용 양상은 문장 간 의미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접속 부사어의 정의와 분류는 학자마다 다양한 범주로 제시되고 있어 단일한 기준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김서현, 2022), 일반적으로는 문장 간 의미 관계를 드러내며 텍스트의 응집성(cohesion)을 형성하는 핵심적 담화 장치로 간주된다. 전문영(2024)은 문장 또는 절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가 언어적 형태로 실현된 문법 구조를 접속 구성으로 정의하며 그 중요성을 기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렬 관계의 “그리고”와 대조 관계의 “하지만” 등을 문장 간 의미적 결속을 담당하는 접속 부사어로 간주한다. 다만, 영어 원문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관계가 등위 접속사나 접속 부사 등 다양한 층위의 품사로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번역문과의 대응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들을 통칭하는 ‘접속 표현(connective expressions)’이라는 용어를 병용한다.

번역문에 반영된 결속 장치의 사용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논리적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접속 부사어는 문장 간 인과, 대조, 병렬 관계를 드러내어 해석의 방향을 안내한다. 만약 학습용 번역문이 특정 유형의 결속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학습자는 해당 번역 문체에 익숙해져 특정 독해 전략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제한받을 수 있다. 특히 학습자가 번역문을 하나의 확정된 해석으로 수용할 경우, 이는 학습자가 내면화하는 텍스트 의미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정작 시험에서 요구되는 추론 능력과 상충할 여지도 존재한다.

한편 번역학에서는 접속 표현을 번역 과정의 명시화(explicitation)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다루어 왔다(Baker, 1996; Blum-Kulka, 1986). 학습용 번역문은 학습자가 원

문 구조를 추적하도록 돕는 기능과 문장 간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 학습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번역문과 다른 번역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 환경에서 사용되는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접속 표현의 사용 양상을 일반 번역문과 비교하는 것은, 학습용 번역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의 영어 원문(source text, 이하 ST)과 한국어 번역문(target text, 이하 TT)을 병렬 코퍼스로 구축하고, 고빈도 접속 부사어인 “그리고”와 “하지만”의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학습용 번역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 맥락에서의 번역 전략이 일반 번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독해 교육에서 번역문 활용 방식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 번역문에 나타나는 고빈도 접속 부사어의 번역 양상은 일반 번역문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이러한 차이는 영어 독해 교육에서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지니는가?

Ⅱ. 문헌 연구

1. 한국어-영어 접속 표현의 특성과 번역에서의 명시화

접속 표현은 문장 간의 의미적 · 논리적 관계를 형성하여 텍스트 내 응집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Biber 외, 1999; Halliday & Hasan, 1976). 한국어와 영어는 접속 구성 방식에서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가진다. 영어에서는 등위접속사(and, but 등), 종속접속사(because 등), 그리고 접속 부사(however, therefore 등)가 활용되며, 특히 접속 부사는 문장 내 다양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Biber 외, 1999). 반면 한국어는 동사 어미 변화를 통한 절 접속이 주요한 수단이며, 문장 간 연결에는 “그리고”, “그러나”와 같은 접속 부사어가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전문영, 2024). 예를 들어, 영어는 “but”과 같은 독립된 접속사를 사용하여 절을 연결하는 반면 한국어는 동사 어미의 활용을 통해 절을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가령 영어 문장 “Tom ate the apple but Mary did not do it”에서는 “but”과 같은 독립된 접속사를 통해 절이 연결된 반면, 한국어에서는 “영호는 사과를 먹었지만 영미는 먹지 않았다”와 같이 동사 어미 “-지만”을 통해 절 간 결속이 형성된다(전문영, 2024).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접속 표현 사용과 이해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시연(2018)은 한국인 학습자가 “so”, “but” 등의 절 연결형 접속사를 문두에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향을 지적하였고, 배상희(2024)는 이를 한국어 접속 부사와 영어 접속사의 기능 혼동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송수린(2017), 김태희와 박매란(2020), 김서현(2022)은 한국인 학습자의 접속 부사어 사용이 빈약하고 편향되어 있

음을 관찰하였다.

접속 표현의 번역 양상에서도 양 언어 간 결속 방식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백승주(2011)는 “그러나”에 상응하는 영어 표현 분석을 통해, 영어가 결속 범위가 좁을 때 접속 표현을 생략하는 반면 한국어는 해당 표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하였다. 오영옥(2012)은 “and”가 한국어 번역 시 접속 어미(65.4%), 접속 조사(31.5%), 접속 부사(3.1%) 등 다양한 문법 범주로 전환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언어 형식의 차이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논리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번역문이 풍부한 연결 어미(“-고”, “-아서/어서”, “-다가” 등)를 통한 정교한 의미 변환 없이 획일적인 대응만을 반복한다면, 학습자는 “and”가 맥락에 따라 지니는 다양한 함축적 의미(결과, 시간적 순서, 대조 등)를 파악하기보다(오영옥, 2012), 번역문의 고착화된 연결 양상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학습용 번역문이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에 머무를 경우, 원문의 논리적 층위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학습자의 독해 전략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양 언어의 구조적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정보가 원문보다 구체화되는 ‘명시화’현상(Baker, 1996)[2]으로 이어진다. 영한 번역을 다룬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는 영어를 번역할 때 맥락상 생략된 연결 고리도 명시적인 접속 부사어로 표현하는 특성이 강하며(백승주, 2011), 이로 인해 번역문 내 접속 부사어의 빈도가 원문에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김정우, 2009, 2015; 김혜영, 2009a, 2009b; 조의연, 2011; 최희경, 2016; 한승희, 2016). 적절한 명시화 전략은 독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 이해를 돕는 측면이 있으나, 학습용 번역에서 “and”나 “but”과 같은 다의적 표현이 획일적인 사전적 의미로만 제시될 경우 학습자가 문맥 속에서 논리 관계를 분석할 기회를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용 번역문은 단순한 어휘 대응을 넘어, 원문의 논리 구조 이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비계로서 기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EBS 수능 연계 교재와 같은 학습용 번역문의 접속 표현 양상을 분석하여 일반 출판 번역과 구별되는 전략이 작동하는지 탐색하는 것은, 독해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번역문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학습용 번역으로서의 EBS 교재 번역문

EBS 수능 연계 교재는 국내 고등학생 다수가 활용하는 핵심 학습 자료이며(박지은, 임현우, 2017), 이에 수록된 한국어 번역문 또한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실질적인 교육 자원으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영어 지문의 어휘 수준, 이독성, 문항 난이도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집중해 왔으며(강동호, 2021; 김미혜, 이성원,

[2] 번역된 텍스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 또는 규칙성을 지칭하는 번역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 중 하나이며, 번역보편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단순화, 명시화, 규범화, 평준화가 주로 제시된다(Baker, 1996; Laviosa, 2002).

2018; 김재은, 최인철 2015; 안혜선, 배지영 2021; 양수영, 이동주, 2019; 이현우 2020; 조민수, 박은수, 2016)[3],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번역을 외국어 학습에 비효율적인 전략으로 간주해 온 전통적 교육 인식에서 기인한다. 번역이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기반한 표면적 이해 방식으로 치부되며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받으면서(Coulson & Denman, 2025; Fotos, 2005), 독해 교재의 번역문 또한 단순한 해석본 수준으로만 취급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번역을 문화 간 이해와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중재 수단으로서 재조명받으면서, 이를 외국어 교육의 유효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Cook, 2010; Laviosa, 2014; Pym & Nune, 2017; Widdowson, 2014). Cook(2010)은 'TILT(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개념을 통해 번역을 외국어 교수 전반에 걸친 전략으로 확장하였으며, Pintado(2021) 또한 학습자의 내면적 번역과 코드스위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번역의 역할을 재정의하였다.

2020년대 들어 번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 기술을 넘어, 학습자의 다언어적 인지 과정과 전문적 언어 사용 능력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핵심 교수 · 학습 자원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번역을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인지 과정으로 파악하고, 학습자가 보유한 모든 언어 자원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다언어적 접근과 필수적인 언어적 중재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Linares, 2022; Murtisari, 2021). 특히 AI 기반 기계번역의 확산은 번역을 교육적 회피의 대상이 아닌, 비판적 언어 인식과 대조 분석을 촉진하는 능동적 도구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번역 활동은 어휘·문법 단위를 넘어 담화 차원의 언어 발달을 견인하는 전략적 교수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Yu & Coulson, 2025), 모국어와 외국어를 분리하기보다 두 언어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병렬 텍스트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Directorate General for Translation, European Commission(DGT, 2013)는 학습용 번역에 원문(ST)-번역문(TT) 병렬 텍스트를 활용한 비교 · 대조 및 의미 분석 활동 등을 포함하였고, Gaspar(2009)는 ST와 TT를 번갈아 읽으며 번역문을 수정하거나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하는 활동을, Cook(2010)은 기번역 텍스트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용 번역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화자(2017)는 한국어 TT의 반복 읽기가 학습자들의 영어 ST 이해도 및 어휘 습득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으며, 한윤정 외(2020)는 ST-TT 정렬을 통해 다양한 언어적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번역문이 학습자의 이해 촉진과 언어 인식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가 병렬 텍스트 활용 방식에만 초점을 두어, 학습 촉진

[3] EBS 교재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지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 역시 주로 어휘적 특성이나 텍스트 난이도, 그리고 학년 간·교재 간 연계성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김낙복, 2008; 이혜진 외, 2024).

을 위해 번역문 자체가 어떠한 언어적 • 질적 특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고난이도 지문이 포함된 EBS 교재의 특성과 수능 중심의 교육 구조를 고려할 때 해당 교재 번역문은 실제 교실 현장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내신 평가가 수능 대비의 일환으로 해당 교재의 지문을 활용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학습자들이 번역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상은 실질적이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김지영, 2025). 그럼에도 번역문은 단순한 해석 결과물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부합하는 텍스트 입력을 제공하고(Murphy Odo, 2019), 읽기 전략 교육과 문화 간 소통 능력 배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Ortega, 2014).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시 영어의 접속 구성과 문장 간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전문영, 2024), 접속 부사어의 번역 방식을 고찰하여 이것이 학습자의 텍스트 논리 인식 방식과 독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빈도 접속 부사어 “그리고”, “하지만”의 번역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EBS 교재 번역문이 학습용 번역의 구체적 사례로서 지니는 특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에 나타난 접속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 이것이 일반 번역문과 어떻게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BS 교재와 일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병렬 코퍼스를 각각 구축하여 정량적·질적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체 코퍼스에서 접속 표현의 출현 양상을 확인한 후, 그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병렬 관계의 “그리고”와 대조 관계의 “하지만”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연구 대상 및 코퍼스 구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영한 병렬 텍스트와 일반 도서 및 기사문을 기반으로 한 비교 코퍼스로 구성된다. 학습용 번역문의 고유한 특징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으로서의 기준점이 필요하며,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생산된 번역문은 이러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비교 집단이다. EBS 번역문만을 단독으로 분석할 경우 관찰된 현상이 교육적 목적에 특화된 전략인지, 혹은 영한 번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인지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 코퍼스 설계는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과 일반적인 번역 텍스트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 설계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목적 번역과 일반 번역 관행 간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비교 코퍼스로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생산된 번역 텍스트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인 도서

와 기사 번역문을 선정하였다.

1) EBS 수능 교재 코퍼스

연구 코퍼스는 EBS의 공식 수능 연계 교재 중 듣기 교재를 제외한 독해 교재 세 종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네 권의 교재를 선정하여 각 100문항씩 총 400개의 영어 지문(ST)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문(TT)을 수집하여[4], 총 66,168토큰의 ST와 51,908토큰의 TT로 구성된 연구 코퍼스를 구축하였다.[5] 교재별 문항 분포 및 텍스트 규모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코퍼스 선정 범위 및 규모

제목	범위		규모(토큰)	
	ST	TT	ST	TT
2020 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6-115쪽 (1강1번-10강2번)	정답과 해설 2-76쪽	18,027	14,144
2020 년도 수능특강 영어영역	10-87쪽 (1강1번-13강7번)	정답과 해설 2-53쪽	15,002	11,946
2020 년도 수능완성 영어영역	8-95쪽 (1강1번-실전1회38번)	정답과 해설 2-70쪽	16,332	12,644
2021 년도 수능완성 영어영역	8-95쪽 (1강1번-실전1회38번)	정답과 해설 2-70쪽	16,807	13,174
합계			66,168	51,908

본 연구는 2020 및 2021학년도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수능 영어 영역의 연계율이 73.3%에 달하며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는 직접 연계 방식이 적용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2020). 2022년도부터 연계율이 51.1%로 축소되고 전 문항이 간접 연계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데이터는 교육적 목적이 가장 선명하게 반영된 시기의 번역 관행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대표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연도에 국한된 일회성 경향을 관찰하기보다, 최근 수년간 축적된 학습용 번역문의 관행과 교육적 사용 맥락을 분석하는 데 있으므로, 해당 교재들은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사료된다. 다만 교재 간 발행 연도와 구성의 차이로 인해 코퍼스의 완전한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4] 각 문항의 지문은 약 200토큰 내외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문은 교재 해설지에 동일한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5] 본고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측정한 토큰(token)으로 텍스트 단위를 통일하여 제시한다.

2) 일반 도서 및 기사문 코퍼스

EBS 교재 번역문과의 비교를 위한 비교 코퍼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특정 번역자나 문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공신력이 검증된 번역문을 선정한다. 둘째, 텍스트의 주제적 성격과 언어적 난이도 측면에서 EBS 교재와 비교 가능한 수준의 텍스트를 확보한다.

먼저 일반 도서 코퍼스는 교보문고 연간 베스트셀러 상위 10위 내의 비문학 도서 중, 인문, 경제, 과학 등 EBS 지문 소재와 유사한 카테고리[6]의 역서 9권을 선정하였다. 기사문 코퍼스는 The New York Times, MIT Technology Review 등 주요 해외 언론사의 기사와 그에 대응하는 공식 한국어 번역문을 활용하였다. 번역문은 각 언론사의 공식 한국어 사이트, SBS 스브스프리미엄 등의 제휴 플랫폼, 그리고 뉴스페퍼민트와 같은 외신 큐레이션 매체를 통해 확보하여 특정 번역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는 98개의 기사문(ST-TT 쌍)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하에서도 학습자 대상 텍스트와 일반 독자 대상 텍스트 사이의 차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는 장르 및 독자 차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텍스트 난이도와 언어적 특성을 다층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Coh-Metrix 기반 분석 도구인 T.E.R.A.를 활용하여 서사성, 통사적 단순성, 어휘 구체성, 응집성 지표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EBS 지문과 언어적 특성이 유사한 일반 텍스트만을 엄선함으로써 비교의 타당성을 높였다. 동시에, 두 집단 간의 독자층 및 교육 목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차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해석 대상이다. 만약 두 코퍼스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한 문체 차이를 넘어 교육 목적의 번역이 일반 번역과 구별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장르와 독자의 차이는 학습용 번역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유의미한 분석 요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교 코퍼스 구축 시에도 각 텍스트는 약 200토큰 내외의 길이로 추출하였다. 일반 도서는 각 장의 도입부, 중간, 결말부에서 고르게 발췌하였고, 기사문은 전체 길이에 따라 세 개에서 최대 아홉 개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텍스트의 전체적 맥락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차적으로 수집된 텍스트는 역서 ST-TT 239쌍, 기사문 ST-TT 208쌍이 포함된 총 894개이며, 그 세부 구성은 표 2와 표 3에 제시한다.

[6] 김지영(2020)은 교육부 권장 소재, 수능 출제 지문, EBS 연계 교재의 소재를 비교한 결과, EBS 교재 ST에는 주로 인문, 경제, 과학 중심의 비문학 텍스트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하였다.

표 2
비교 코퍼스 중 일반 도서 추출 범위와 규모

제목	범위		발췌 텍스트 개수 (ST+TT)
	ST	TT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21 세기를 위한 21 가지 제언*	3-79쪽	20-132쪽	100
Beyond Order *질서 너머*	1-103쪽	27-128쪽	86
The Socrates Express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3-35쪽	21-75쪽	40
2030 *2030 축의 전환*	72-149쪽	119-230쪽	90
The Psychology of Money *돈의 심리학*	57-119쪽	99-196쪽	26
Unscripted *언스크립티드*	290-345쪽	354-440쪽	36
Survival of the Friendliest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처음-76쪽	15-135쪽	30
Lab Girl *랩걸*	95-118쪽	139-171쪽	28
The Secret Lives of Colors *컬러의 말*	13-111쪽	13-114쪽	42
	Total		**478**

표 3
비교 코퍼스 중 기사문 추출 범위와 규모

언로사명		기사 개수 (ST+TT)	발췌 텍스트 개수[7] (ST+TT)
ST	TT		
The New York Times	SBS News	48	196
MIT Technology Review	MIT Technology Review Korea	36	174
BBC	BBC News Korea	6	22
Harvard Business Review	Harvard Business Review Korea	4	12
The Guardian	NewsPeppermint	2	6
The Washington Post	NewsPeppermint	2	6
	Total	**98**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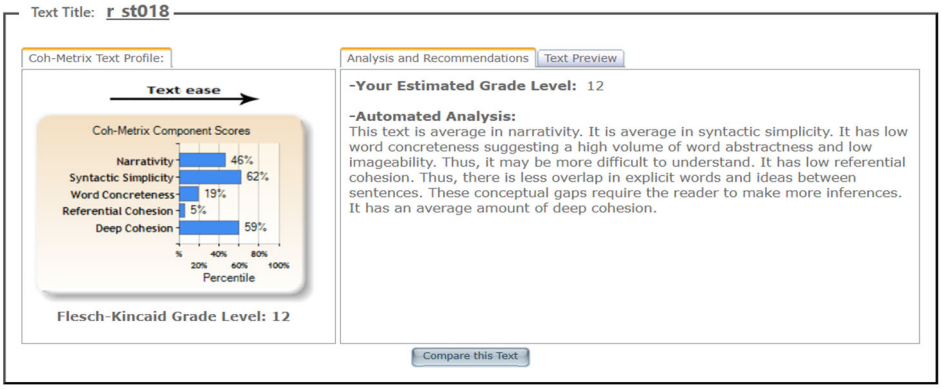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정량 분석을 위해 T.E.R.A.(이하 '테라') 툴과 AntConc 3.5.9(이하 '안트콩크')를 두 가지 주요 도구로 사용하였다. 테라는 언어 분석 도구인 코메트릭스(Coh-Metrix)기반의 사용자 기반 파생 프로그램으로, 다층적인 언어적 지

[7] 서적은 다양한 소재를 최대한 균일하게 포함하고자 분석 대상 도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였으며, 기사문의 경우 언론사에 따라 한국어 번역 기사의 개수가 다르고 영어 원문 기사의 열람 조건 등 여건상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각 서적과 기사문에서 발췌한 텍스트의 개수가 서로 다른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표를 통해 텍스트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해당 툴은 각 지표에 대해 백분위수와 시각화된 그래프를 제공하며, 선행 연구에서도 수능 지문 난이도 분석, 통역 교육 텍스트 평가 등에 활용되어 왔다(고나은, 신정아, 2017; 박정곤, 이동주 2021; 이현지, 이동주 2022; 최문선, 2023). 본 연구에서는 테라의 여섯 가지 지표인 서사성(narrativity), 통사적 단순성(syntactic simplicity), 어휘 구체성(word concreteness), 지시적 응집성(referential cohesion), 심층 응집성(deep cohesion), 플레시-킨케이드 학년 수준(Flesch-Kincaid Grade Level)을 활용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테라 분석 결과 예시



또한 접속 부사어의 출현 양상과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콘코던스 프로그램인 안트콩크 툴을 활용하였다. 한국어 텍스트는 꼬꼬마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의 품사 태그를 기준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 결과를 안트콩크에 입력하여 접속 부사어의 사용 빈도 및 위치를 추출하였다.

3. 코퍼스 정제 및 최종 선정

EBS 교재는 일반 도서나 기사문과 달리 독해 중심의 고난이도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텍스트의 정보 밀도가 높은 특징을 가진다. 반면 일반 서적 및 언론 기사는 대중적 수용성과 가독성을 고려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글의 호흡이 영어 교재 지문에 비해 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라 툴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에 관여하는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두 코퍼스를 유사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앞 단계에서 구축한 EBS 연계 교재의 ST 400개를 텍스트 파일(.txt) 형태로 구성한 후 테라 웹사이트에 입력하여, 각 텍스트의 여섯 가지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지표 별로 산출치의 중간값(μ)과 표준편차(σ)를 계산하여 $\mu \pm \sigma$의 구간을 정의하였다. 이후 비교 코퍼스(ST 447개)의 여섯 가지 지표값을 같은 방식으로 모두 산

출하고, 각 텍스트의 지표가 연구 코퍼스의 μ ± σ 범위 내에 3개 이상 포함되는 경우만을 최종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비교 코퍼스의 ST는 연구 코퍼스의 ST와 유사한 언어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8]

그 결과 최종 비교 코퍼스는 기수집한 447개 텍스트 중 44개를 제한 403개(85,927 토큰)와 이에 대응하는 TT 403개(65,926토큰)으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코퍼스의 총 규모는 표 4와 같이 EBS 연계 교재 4권의 ST와 TT, 일반 도서 및 기사문의 ST와 TT를 합산한 269,929토큰이다.

표 4
분석 대상 코퍼스 규모

	연구 코퍼스		비교 코퍼스					
	EBS 교재		일반 도서		기사문		비교 코퍼스 전체	
	관측치	토큰	관측치	토큰	관측치	토큰	관측치	토큰
ST	400	66,168	212	45,274	191	40,653	403	85,927
TT	400	51,908	212	33,108	191	32,818	403	65,926
ST+TT	**800**	**118,076**	424	78,382	382	73,471	**806**	**151,853**
								분석 코퍼스 전체: 269,929

Ⅳ.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EBS 수능 연계 교재 번역문에서 접속 표현의 사용 양상이 일반 번역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특히 전체 접속 부사어 중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그리고”와 “하지만”이 각 텍스트 그룹에서 어떤 방식으로 번역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접속 부사어 사용 양상을 질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코퍼스 규모 및 연구 설계 범위를 감안하였을 때 “and”의 모든 출현 사례를 전수적으로 추출하여 세부 유형별 빈도를 유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대표적인 사용 경향을 중심으로 학습용 번역문과 일반 번역문의 차이를 비교하여 학습용 번역문이 선택하는 결속 전략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8] 4개 이상 공통의 지표 범위를 선택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텍스트 샘플 수가 대폭 줄어들어, 코퍼스 그룹 간 샘플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3개의 지표 기준을 선정하였다.

1. 접속 부사어 출현 양상 개요

전체 코퍼스에서 확인된 접속 부사어는 총 10종으로, 기능에 따라 병렬 접속(그리고), 대조(하지만, 그러나), 인과(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러니까), 전환(그런데), 조건(그러면)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EBS 교재 번역문에는 9종(총 258회), 일반 번역문에는 8종(총 232회)이 출현하였다(표 5 참조).

표 5
접속 부사어 출현 현황

EBS 번역문			일반 번역문		
접속 부사어	빈도	전체 접속부사어 대비 비율 (%)	접속 부사어	빈도	전체 접속부사어 대비 비율 (%)
그리고	151	58.53	하지만	156	67.24
하지만	70	27.13	그리고	53	22.84
따라서	18	6.98	그러나	6	2.59
그래서	11	4.26	따라서	6	2.59
그런데	3	1.16	그래서	5	2.16
그리하여	2	0.78	그러니까	4	1.72
그러나	1	0.39	그러면	1	0.43
그러면	1	0.39	그런데	1	0.43
그러므로	1	0.39			
합계	**258**			**232**	

EBS 번역문에서는 "그리고"가 전체 접속 부사어 중 151회(58.5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일반 번역문에서는 "하지만"이 156회(67.24%)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본 수치는 단순 출현 횟수를 제시한 기술 통계이나, 특정 접속 부사어가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현상은 번역 주체의 일관된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결속 전략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분석은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통한 가설 검정보다는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두 코퍼스 간 주된 접속 부사어의 종류와 비율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집단 간 경향성의 차이를 논하는 근거로서는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 텍스트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그리고"와 "하지만"은 각각 병렬과 대조라는 상이한 논리적 성격을 지니며, 그 출현 비율 또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차이는 본 장에서 이어지는 질적 분석의 출발점이 되며, 두 접속 부사어가 각각의 번역문 내에서 어떠한 문맥적 특징을 가지고 사용되었는지 고찰함으로써 학습용 번역과 일반 번역 간 텍스트 장르 차이 및 교육적 목적이 접속 표현의 선택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그리고”의 사용 양상 비교

코퍼스 분석 결과, 영어 원문의 “and”가 한국어 번역에서 “그리고”로 실현된 빈도와 결속 단위는 학습용 번역과 일반 번역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의 결속 단위별 분포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그리고”의 결속 단위별 분포 (EBS 번역문 vs 일반 번역문)

결속 유형	EBS 번역문	비율(%)	일반 번역문	비율(%)
구-구 접속	127	84.11	47	88.68
절-절 접속	22	14.57	6	11.32
구-절 혼합	2	1.32	0	0
합계	**151**	**100**	**53**	**100**

EBS 번역문에 등장한 “그리고”의 총 151회 중 구와 구를 연결한 건은 127회, 절과 절 간의 연결은 22회, 구. 절 혼합 접속이 2회로, “그리고”가 주로 병렬 구를 연결하는 결속 장치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일반 번역문에서는 53회 출현한 “그리고” 중 구 접속이 47회, 절 접속이 6회로 분포하였다.

1) 기계적 대응 번역의 반복

EBS 번역문에서 “그리고”가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된 것은 영어 원문의 “and”를 기계적으로 “그리고”로 옮기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문 1처럼 ‘A, B, C and D’와 같은 구접속 구조에서 영어 어순 그대로 “그리고”로 직역[9]한 건이 많았고, 예문 2처럼 접속조사(예. “-과”)나 여타 접속 부사어, 쉼표 등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일관되게 “그리고”로 번역한 사례도 빈번히 관찰되었다.

(1) a. We cannot undervalue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s in which we live - natural, social, **and** athletic. (2020 수능특강 독해연습 51 쪽; r_st046[10])
b. 우리는 자연환경, 사회 환경 **그리고** 운동 환경과 같은 우리가 사는 환경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2020 수능특강 독해연습 정답과 해설 33쪽; r_tt046)

[9] 직역은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충실한 번역, 의역은 글 전체의 의미를 중시하는 번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광의의 구분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직역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 의역은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려 번역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직역 여부를 논의한다.

[10] 연구 코퍼스일 경우 r, 비교 코퍼스일 경우 c로 표기하였으며 046은 연구 코퍼스의 400개 ST 중 마흔여섯 번째 텍스트임을 의미한다.

(2) a. Instead, the term was reserved for human behavior **and** typically for behaviors that are categorized as delinquent or antisocial. (2021 수능완성 영어영역 66 쪽; r_st368)
b. 대신, 그 용어는 인간의 행동 **그리고** 보통 비행이나 반사회적으로 분류되는 행동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다. (2021 수능완성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 41쪽; r_tt368)

2) 병렬 표현의 중복 사용

EBS 번역문 일부에서는 대등 연결 어미 "-고", "-며" 등이 이미 쓰인 문장에 "그리고"가 병치되어 쓰였다. 이는 ST에 충실한 번역 경향과 함께 병렬 구조를 학습자에게 명확히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문 3과 4에서는 앞 절의 끝에 대등연결어미 "-이며" 또는 "-이고"로 이미 병렬 관계가 표현되었음에도 "그리고"가 중복 사용되었다.

(3) a. [..] some of our dreams seem to be related to daily problems, some are vague and incoherent, **and** some are anxiety dreams that occur when we are worried or depressed. (2020 수능특강 영어 75 쪽; r_st182)
b. [..] 우리 꿈의 일부는 일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일부는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거나 우울할 때 꾸게 되는 불안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020 수능특강 영어 정답과 해설 42쪽; r_tt182)

(4) a. [..] to immerse oneself in history to get as wide a knowledge of economic facts as possible, **and** on that basis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society. (2021 수능완성 영어 39 쪽; r_st334)
b. [..] 경제적 사실에 대한 가능한 한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 역사에 몰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경제와 사회 간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다. (2021 수능완성 영어 정답과 해설 20쪽; r_tt334)

3) 일반 번역문에서의 다양한 번역 전략

반면 일반 번역문은 "and"를 다양하게 번역하거나 생략해 문장을 간결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접속 부사어 대신 쉼표, 연결어미, 접속 조사 등을 사용하거나, 문장을 나눠 정보 흐름을 조정하는 방식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ST 구조보다 TT의 유창성과 가독성을 중시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5) a. [..] that these fears are "ridiculous" **and** the conversation about AI risks has become "unhinged." (Four trends that changed AI in 2023, MIT Technology Review; c_st165)

b. [..] 이러한 우려가 ‘터무니없으**며**’ AI의 위험성에 관한 주장들이 ‘도를 지나친 것 같다’고 [..]. (2023년 AI 분야의 네 가지 중대 변화, MIT Technology Review Korea; c_tt165)

(6) a. Humans think in stories rather than in facts, numbers, or equations, **and** the simpler the story, the better.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3 쪽; c_st001)
b. 인간은 사실과 숫자, 방정식보다는 이야기 안에서 생각한다. 이야기는 단순할수록 좋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0쪽; c_tt001)

(7) a. Then the communist story collapsed, **and** the liberal story remained the dominant guide to the human past **and** the indispensable manual for the future of the world [..].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3 쪽; c_st001)
b. [...] 공산주의 이야기가 무너지**면서** 자유주의 이야기가 인류의 과거에 대한 지배적인 안내자**이자** 세계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매뉴얼로 남았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0쪽; c_tt001)

예문 5의 경우 연결어미 “-며”가 사용되었고, 예문 6은 ST의 “and”을 기준으로 문장이 분할되어 번역되는 전략이 구사되었다. 예문 7에서는 번역자가 강조를 위해 “and”를 “-면서”로 옮겨, “공산주의 이야기가 무너지”고 “자유주의 이야기가 [..] 필수적인 매뉴얼로 남은”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음을 부각시켰다.

3. “하지만”의 사용 양상 비교

1) ST 접속사와의 일대일 대응

EBS 교재 번역문과 일반 번역문에서 “하지만”은 주로 문두에 위치해 앞 문장과의 대조 관계를 나타냈으며, 대부분 영어 원문의 “but”, “however”, “yet”에 대응되었다. 각 코퍼스 그룹의 대응 표현 분포는 아래 표 6과 같으며, 예문 8은 대조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대응 표현으로 쓰인 일반 번역문의 예시이다.

표 6
“하지만”의 대응 표현 비교

대응 표현(ST)	EBS 번역문	일반 번역문
but	33	95
however	32	25
yet	5	10
기타 대조 접속사[11]	-	9

[11] 일반 텍스트의 “하지만” 156건 중 대조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대응 표현으로 총 139건 쓰였으며, 구체적으로는 “but” 95건, “however” 25건, “yet” 10건, “though”와 “while”이 각각 3

and	-	2
대응 표현 없음	-	15
합계	70	156

(8) a. **Although** there have been efforts to include certain languages in AI models even when there is not much data available for training, to Abbott, these results show [..]. (This company is building AI for African languages, MIT Technology Review; c_st089)

b.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언어를 AI 모델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애보트가 얻은 결과는 [..] 보여줬다. (챗GPT 같은 AI 모델이 아프리카 언어를 이해 못 하자 생긴 일, MIT Technology Review Korea; c_tt089)

2) 일반 번역문에서의 논리 관계 명시화

일반 번역문에서는 ST의 대응 표현 없이 TT에 “하지만”이 자의적으로 삽입되어 논리 전환이 명시화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Table 6 참조). “and”가 “하지만”으로 번역된 건이 2건, 대응 접속사 없이 “하지만”이 첨가된 경우는 15건이었다.

(9) a. They also disproportionately contribute to global warming [...]-a process known as the “heat island effect. ” **And** these are based on current figures. (2030 124 쪽; c_st025)

b.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크게 부추기며, [...] 이른바 ‘열섬효과’를 유발한다. **하지만** 이 엄청난 숫자들도 오직 현재 상황만 말해줄 뿐이다. (2030 축의 전환 197쪽; c_tt025)

(10) a. [...] the amount of oil we could drill couldn’t keep up. We didn’t run out of oil, thank goodness. (The Psychology of Money 103 쪽; c_st038)

b. 우리가 채굴하는 석유의 양이 따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 석유는 동나지 않았다. (돈의 심리학 172쪽; c_tt038)

(11) a. [..], and for the vast majority of human history, when it stopped there was generally no coming back. That changed around 1960, with the invention of CPR. (The Biggest Questions: What is death?, MIT Techonology Review; c_st198)

b. [..],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다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1960년경 심폐소생술이 발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MIT Techonology Review Korea; c_tt198)

(12) a. [..], most students take Bill completely for granted, save a very few who understand that by the end, their thesis is often as much his as it is theirs. (Lab Girl 111 쪽; c_st117)

건, “although”와 “nevertheless”, “unfortunetely”가 각각 1건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b. [..] 대부분의 학생들은 빌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학생들은 졸업할 때쯤 논문을 쓰는 데 자기만큼이나 빌의 공이 컸다는 것을 이해한다. (랩걸 160쪽; c_tt117)

(13) a. [...] building wealth has little to do with your income or investment returns, and lots to do with your savings rate. A quick story about the power of efficiency. (The Psychology of Money 103 쪽; c_st038)

b.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부가 소득이나 투자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니, 믿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개념이다. 효율성의 힘에 대해 간단히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돈의 심리학 172쪽; c_tt038)

위의 예문 9에서는 ST의 “and”가 TT에서 “하지만”으로 번역되어 두 문장의 대조가 강조되었다. 예문 10과 11은 어느 정도 상반된 앞뒤의 내용이 ST에서는 접속 부사어로 표현되지 않았음에도, TT에서 “하지만”이 추가되며 논리 관계의 명시화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예문 12는 문장 분할 과정에서, 예문 13은 새로운 문장을 덧붙이면서 “하지만”이 삽입되었다.

Ⅴ.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빈도 접속 부사어인 “그리고”와 “하지만”을 중심으로 EBS 수능 연계 교재와 일반 번역문의 번역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BS 교재 번역문은 원문의 문장 구조에 대한 충실성을 우선하는 직역 중심의 경향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접속 부사어의 반복 및 과잉 사용이 두드러졌다. 이는 단순한 명시화 전략의 결과라기보다 학습자가 모국어를 통해 수행하는 내면적 번역 과정을 보조하는 일종의 중간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전략은 학습자에게 문장 단위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일차적인 이해를 돕는 비계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담화 구조에 대한 학습자의 추론 기회를 제한하고 번역문이 제시하는 표면적 연결 관계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게 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반면 일반 번역문은 가독성과 논리적 명료성을 중시하여 접속 표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과감히 생략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출판 번역이 문장 구조의 일대일 대응보다 텍스트 흐름의 자연스러움과 가독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용 번역문과 일반 번역문 간의 이러한 차이는 일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언어 간의 대응에 역점을 두는 학습용 번역 전략이 원문 이해와 문제 해결 과정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증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직독직해적 번역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통념이 실제 교육적 효과와 항상 일치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고, 학습용 번역문이 지녀야 할 결속 표현의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교육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단계 및 텍스트 난이도에 따른 유연한 번역 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난이도가 낮은 지문이나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구조 중심의 직역이 유용할 수 있으나, 고난도 추론이 요구되는 지문에서는 텍스트의 논리적 전개를 명확히 드러내는 의역 중심의 번역이 학습자의 실질적인 독해 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용 번역은 직독직해 중심의 구조적 번역과 논리 중심의 의역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교실 현장에서 교재 번역문을 ‘정답’이 아닌 ‘중재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학습자는 내신 대비나 어휘 · 문법 학습을 위해 구조 중심의 번역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때 접속 표현은 의미 단위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교사는 문제 풀이 지도와 논리 흐름 설명 등을 위해 보다 유창한 번역문을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번역문을 단순한 해석의 예시로 고착시키기보다, 교육의 맥락에 따라 원문과 번역문의 결속 표현 차이를 비교 · 분석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메타언어 의식과 텍스트 인식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번역문이 독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교육적 도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깊이 있는 독해 능력과 인지적 성장을 고려한 번역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 대응 중심 번역은 문장 단위 해석에는 유용하나 담화 수준의 추론 능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스스로 원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재구성하여 장기적인 독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번역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는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 번역문에 나타난 접속 부사어의 사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일반 번역문과 비교함으로써 학습용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EBS 번역문은 교육적 목적 하에 원문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에서 접속 부사어의 기계적 직역이나 반복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난 반면, 일반 번역문은 유창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접속 표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생략하는 전략을 구사함을 확인하였다.

접속 표현은 텍스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기제이며, 그 번역 양식은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실제 텍스트 이해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접속 부사어라는 특정 요소에 주목하고 해당 번역 양상을 문장 단위에서 고찰한 본 연구는 분석 틀과 범위 면에서 탐색적 초기 연구로서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코퍼스의 규모와 분석 단위의 제약으로 인해 원문 “and”의 모든 출현 사례에

대한 정량적 전수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표 양상 중심의 질적 비교에 집중하였다. 둘째, 분석 과정에서 독립적인 2차 코더의 참여를 통한 외부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신뢰도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여 실제 학습자의 독해 수행 능력과 번역문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통제된 실험 설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번역 과정에서 개별 번역자의 개인적 해석, 전문성, 번역 경험 등 번역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변수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교육적 목적이 투영된 학습용 번역문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ST-TT 병렬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그간 당연시되었던 학습용 번역의 직역 중심 관행을 일반 번역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가시화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독해를 지원하기 위한 번역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명함으로써 학습용 번역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둘째, 번역문 간의 차이를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차이가 학습자의 독해 과정과 교육적 경험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비판적으로 조망하여 번역학적 논의를 교육 현장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독해력 향상에 번역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제 학습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와 실험 등의 교실 기반의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급격히 발전한 AI 기반 번역 도구를 활용하면 다양한 양식의 학습용 번역문을 체계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므로, 직독직해형 번역과 의역 중심 번역 간의 교육 효과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EBS 교재 번역문은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정밀한 분석과 교육적 재구성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교육적 자원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접속 표현 번역 양상에 대한 고찰이 향후 독해 교육 현장에서 번역문을 보다 전략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동호. (2021). 2021년 EBS 연계교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및 읽기 지문의 어휘 범위. *중등영어교육*, *14*(2), 33-47. http://dx.doi.org/10.20487/kasee.14.2.202105.48.

고나은, 신정아. (2017). Coh-Metrix를 이용한 수능 영어 읽기 영역 지문 난이도 비교: EBS-수능 연계 정책 전후. *중등영어교육*, *10*(4), 3-24.

김낙복.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영어어문교육*, *14*(4), 201-221.

김미혜, 이성원. (2018). EBS 자료와 CSAT 및 영어교과서 어휘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4), 417-427. http://dx.doi.org/10.35873/ajmahs.2018.8.4.038

김서현. (2022). *한국인 대학생 영작문에 사용된 접속부사어구 사용 양상에 대한코퍼스 기반 연구: 작문의 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재은, 최인철. (2015).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수능 연계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코퍼스기반 난이도 비교 분석.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8*(1), 59-92. http://dx.doi.org/10.15702/mall.2015.18.1.59

김정우. (2009). 한국어 번역문의 구조적 명시화: 특정 보어 구문의 열세적 분포와 관련하여. *번역학연구, 10*(3), 77-97. http://dx.doi.org/10.15749/jts.2009.10.3.004

김정우. (2015). 번역 보편소의 한 사례. *한국학연구, 53,* 29-48. http://dx.doi.org/10.17790/kors.2015..53.29

김지영. (2020a). EBS 수능 연계교재의 영한 번역 양상 고찰: 문장 분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1), 61-86. http://dx.doi.org/10.15749/jts.2020.21.1.003

김지영. (2020b).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학습 번역: EBS 수능 연계 영어교재 번역문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62*(3), 291-325.

김지영. (2025). EBS 수능 연계 영어 교재 번역문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학습용 번역(pedagogical translation)의 관점에서.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5*, 1257-1280. http://dx.doi.org/10.15738/kjell.25..202509.1257

김태희, 박매란. (2020).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작문에서 접속어 사용 코퍼스 분석. *언어과학, 27*(3), 79-102. http://dx.doi.org/10.14384/kals.2020.27.3.079

김혜영. (2009a).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 보편소의 실현 양상: 국어 비교 코퍼스에 기반하여. *통번역교육연구, 7*(2), 103-120.

김혜영. (2009b). *국어 번역문과 번역 글쓰기*. 한국문화사.

대한출판문화협회. (2025). *2024 년 출판시장 통계 연구보고서*. http://member.kpa21.or.kr/kpa_bbs/2024 년-출판시장-통계보고서 2025-4-28-수정/

박정곤, 이동주. (2021). Coh-Metrix를 활용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읽기 지문 난이도 비교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47(*3), 147-170. http://dx.doi.org/10.21559/aellk.2021.47.3.008

박지은, 임현우. (2017). 영어 학습자·교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EBS 연계 교재의 사용 현황 및 체감 효율성.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1), 31-57. http://dx.doi.org/10.22275/SEE.22.1.02

배상희. (2024).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접속 부사어 사용 특징 연구. *중등영어교육, 17*(3), 53-72.

백승주. (2011) 한국어 접속표현과 영어 접속표현의 변환(shift)현상 연구: 접속부사 ‘그러나’의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2*(4), 131-162. http://dx.doi.org/10.18209/iakle.2011.22.4.131

송수린. (2017). *한국 고등학생 영작문 코퍼스에 나타난 접속 부사어구 분석*[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안혜선, 배지영. (2021).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고등학교 영어 Ⅰ과 Ⅱ 교과서, EBS 수능 연계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읽기 지문의 난이도 비교. *중등영어교육, 14*(3), 39-58. http://dx.doi.org/10.20487/kasee.14.3.202108.39

양수영, 이동주. (2019). 영어 교과서, EBS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읽기 지문에 대한 코퍼스 기반 소재별 어휘 사용 양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711-729.

오영옥. (2012). *영어 등위접속사 and의 한영 번역 연구*[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유소연, 최원국. (2020, 5월 6일). 50만 수험생 교재에 대기업 · 언론 불신 내용.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6/2020050600258.html

윤석만. (2014, 11월 22일). EBS 교재가 ‘수능 교과서’ … 학생들 답만 달달 외워.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495349

이현우. (2020). 수능 영어 시험과 수능-EBS 연계 교재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분석: 읽기 시험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21*(3), 48-57. http://dx.doi.org/10.18095/meeso.2020.21.3.48

이현지, 이동주. (2022). Coh-Metrix를 활용한 한국과 핀란드의 대학입학시험읽기 지문 난이도 비교 연구. *영어교과교육, 21*(3), 183-203.

이혜진, 류지수, 전문기. (2024). Coh-Metrix 시스템을 통한 고등학교 영어 모의시험 독해지문의 학년 내 연계성 분석. *영어어문교육, 30*(2), 111-131.

이화자. (2017). 번역문이 제공된 반복적 읽기가 대학생들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4), 279-303. http://dx.doi.org/1022275/SEE22411

전문영. (2024). 영어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접속 구성 연구. *인문학연구, 63*(4), 301-326.

조민수, 박은수. (2016).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EBS 수능 연계 교재, 대학 수학 능력 영어 시험의 어휘 수준 및 이독성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215-233.

조의연. (2011). 영한 번역과정에 나타난 외축의 명시화: 비대칭 ‘and’ 접속 구문의 화용의미 분석. *번역학연구, 12*(2), 185-206. http://dx.doi.org/10.15749/jts.2011.12.2.008

최문선. (2023). 통역 교육에서의 원문 텍스트 난이도 평가 자동화: 코메트릭스(Coh-Metrix)를 이용한 다차원적 텍스트 난이도 평가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5*(1), 131-153. http://dx.doi.org/10.20305/it202301131153

최희경. (2016). 코퍼스 분석에 기반한 한국어 기사문 번역과 비번역의 문체 비교 연구. *통역과 번역, 18*(1), 231-255. http://dx.doi.org/10.20305/it201601231255

표시연. (2018). 규범문법과 기술문법의 사이에서 코퍼스의 역할: 영어등위접속사의 사용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2*(1), 139-162. http://dx.doi.org/10.37123/th.2018.2.13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 11월 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향 보도자료. https://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0024&boardSeq=5045787&lev=0&m=050102&searchType=S&statusYN=W&page=1&s=ki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향 보도자료. https://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0024&boardSeq=5061522&lev=0&m=050102&searchType=S&statusYN=W&page=1&s=kice

한승희. (2016). CAT 툴 기반 다자수행 번역의 형태적 특징 연구: 영한 번역의 문장 길이와 결속관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4), 167-188. http://dx.doi.org/10.22844/its.2016.20.4.167

한윤정, 정성호, 전홍화. (2020). 질적 어휘 지식 향상을 위한 병렬 텍스트(parallel texts) 과제 활용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 중국어권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 485-516. http://dx.doi.org/10.21716/TKFL.56.17

Baker, M.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H. Somers (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pp. 175-186). John Benjamins. https://doi.org/10.1075/btl.18.17bak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Pearson Education.

Blum-Kulka, S. (1986).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J. House & S. Blum-Kulka (Eds.), *Interlinu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 17-35). Gunter Narr Verlag.

Cook, G. (2010).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 argument for reassessment*. Cambridge UP.

Coulson, D., & Denman, C. J. (2025). *Translation, translanguaging and machine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Directorate General for Translation, European Commission. (2013). Studies on translation and multilingualism. *Translation a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translation in the teaching of languages in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in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May 27, 2022, from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aa06f9e5-5d27-4c8a-beb0-9abf9d91c179

Fotos, S. (2005). Traditional and grammar translation methods for Second Language teaching. In E. Hinkel (Ed.),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p. 653-670). Lawrence Erlbaum Associates.

Gaspar, N. F. (2009). Translation as a fifth skill in EFL classes at secondary school level. In A. Witte, T. Harden & O. Harden (Eds.),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p. 173-180). Peter Lang.

Halliday, M. A.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Kokkinidou, A., & Spanou, K. (2013). The didactic use of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A practical example. In D. Tsagari & G. Flōros (Eds.),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d assessment* (pp. 173-190).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Korošec, M. K. (2013). Teaching grammar through translation. In D. Tsagari & G. Flōros (Eds.),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d assessment* (pp. 23-40).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Laviosa, S. (2014). Core patterns of lexical use in a comparable corpus of English narrative prose. *Meta, 43*(4), 557-570. https://doi.org/10.7202/003425ar

Linares, E. (2022). The challenges and promise of classroom translation for multilingual minority students in monolingual settings. *L2 Journal, 14*(2), 51-74. https://doi.org/10.5070/L214251571

Murphy Odo, D. (2019). The effects of dual-language L2 texts on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and text-type preferences.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3*(4), 449-475. https://doi.org/10.16933/sfle.2019.33.4.449

Murtisari, E. T. (2021). Use of translation strategies in writing: Advanced EFL students. *LLT Journal: A Journal on Language and Language Teaching, 24*(1), 228-239. https://doi.org/10.24071/llt.v24i1.2663

Ortega, L. (2014). Ways forward for a bi/multilingual turn in SLA. In S. May (Ed.), *The multilingual turn: Implications for SLA, TESOL, and bilingual education* (pp. 32-53). Routledge.

Pintado, L. (2021).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pedagogical translation, and code-switching: restructuring the boundaries. *Language Learning Journal, 49*(2), 219-239. https://doi.org/10.1080/09571736.2018.1534260

Pym, A., & Nune, A. (2017). Linguistic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foreign-language teaching contexts. In K. Malmkjae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nd linguistics* (pp. 393-407). Routledge.

Stiefel, L. (2009). Translation as a means to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 Witte et al. (Eds.), *Transl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p. 99-117). Peter Lang.

Yu, H., & Coulson, D. (2025). How can machine translation help Chinese students in an English academic writing task? In D. Coulson & C. J. Denman (Eds.), *Translation, translanguaging and machine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p.371-392). Palgrave Macmillan.

Widdowson, H. G. (2014). The role of translation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J. House (Ed.), *Translat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pp. 222-240). Palgrave Macmillan.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김지영(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 kaylakim24@snu.ac.kr

Received: January 15, 2026
Reviewed: March 6, 2026
Revised version received: March 23, 2026